

‘소위’ 돌아온 탕자(蕩子)

개신교에서는 ‘돌아온 탕자’라고 하지만 가톨릭 입장에서는 ‘되찾은 아들’이라고 한다.

루카복음 15장 즉 세 가지 비유중에 하나인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이다.

탕자라는 단어는 고어체 개신교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평소예 일상적으로 쓰이는 말이 아니다. 난잡하고 흥청거리고 낭비벽이 있는 자들을 그저 못된 놈이라거나 몹쓸 놈 정도로 치부하지만 무슨 ‘탕자’라거나 다른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탕(蕩)’이라는 한자는 털어 없앤다는 뜻으로 ‘방탕하다’ ‘탕감하다’라는 말이나 ‘국고를 탕진하다’라는 단어에 쓰일 정도이다.

어쨌든 빛의 화가라는 위대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이 대작을 그리스도 교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루카복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그린 ‘돌아온 탕자’의 일화는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르네상스의 거장 다빈치에 버금가는 화가가 그린 그림의 제목이니 말이다. 이 그림에 대한 세세한 설명이나 해설은 구글링을 하면 쏟아져 나온다. 한번 찾아보시길 권한다.



Rembrandt 1663-1669 작 Hermitage Museum, Saint Petersburg 소장

렘브란트는 17세기 네덜란드의 구교 신교가 어우러진 집에서 태어났다. 신앙적으로 본인은 개신교 신자라지만 어머니는 가톨릭 신자였고 그 영향을 받았는지 별로 신구교간의 교리전쟁에 휩싸이지는 않은 것 같다. 가톨릭이나 개신교 어느 쪽에서든 그림을 의뢰했고 거기에 따라 열심히 그림을 그렸을 뿐이다. 그러나 개신교 신자로 알려진 그가 바로크 미술(사실적이고 역동적인 미술 사조)의 최고봉이 된 것이다. 신부인 마틴 루터가 당시 가톨릭의 비리를 만천하에 고발한 것이 빌미가 되어 종교개혁 운동으로 번진 것은 아쉽기는 하다. 그런데 이에 대해 반 종교개혁을 일으킨 가톨릭의 의도적 술수(?)로 탄생한 것이 바로크 미술이다. 이는 그림을 통해 가톨릭 신자들의 종교적 감정을 최대한 끌어 올려 종교개혁의 불길을 잡으려 했던 것이다. 여하튼 264cmx202cm에 달하는 이 대작은 그의 유작이 되었다.

이제 그림을 살펴본다. 그는 빛의 화가답게 빛을 세분화 했다. 사실 빛이란 것은 어느 종교나 막론하고 어떤 최고의 주체를 의미한다. 거기에는 선악도 없고 잘잘못도 없는 가치중립적 주체이다. 그러나

빛의 경중은 대상을 구별한다. 힘없고 초췌하고 병이 많이 깊은 듯한 늙은 아버지의 얼굴에 조명이 제일 강하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의 등판과 아버지의 양 손에 빛이 두번째이며 오른 쪽 높은 위치에 있는 큰 아들의 얼굴에도 빛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약하며 그외의 인물들은 한참 어둡다. 돌아온 아들을 맞는 아버지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빛을 투여했다. 여기에서 주인공은 단연 아버지이다. 돌아온 작은 아들에 대한 기쁨도 크겠지만 사실은 오른 쪽에 마치 재판관처럼 높은 계단위에 서서 내려다 보면서 심판을 하는 듯한 큰 아들을 매우 의식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기뻐도 기쁜 내색을 낼 수가 없다.

사실 그림 상에서 강한 외부의 부분 조명을 준 그림을 그린 화가는 전 컬럼에서 거론했던 바로크를 이끈 선대의 카라바조였다. 렘브란트는 그에게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그러나 그는 그의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 외부 조명이 아닌 인물 자체에서 빛이 나오는 듯 묘사했다. 엄청난 발전이었다. 객체가 주체가 되는 역전이 일어났다. 이 그림에서 세 인물은 가치가 동등하다. 당연한 이야기이다. 단지 빛의 함량이 다를 뿐이다.

이 그림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실은, ‘돌아온 아들’을 통해 진짜로 영원히 되찾고 싶은 두 아들을 찾는 절박한 아버지가 주인공인 그림이다. 잠시 세상을 둘러보면 권력과 재물을 주체 못하는 탕자가 이 세상에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현실은 오히려 돌아온 탕자를 비웃고 있다. 큰 아들의 표정이 좀 복잡한데 아버지의 처사보다는 저놈이 왜 돌아와서 속을 뒤집냐 라는 인상이 강하다.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에는 불만 덩어리 큰 아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품안에 던져져 있는 작은 아들에 대한 걱정스러움과 애처러움, 연민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비록 가장 강한 빛을 발산하고 있긴 하지만…!

이 그림의 제목은 아버지가 주인공이라면 ‘돌아 온 탕자’ 보다는 ‘되찾은 아들’이 낫다. 그림에도 정확히 얘기하자면 ‘정말로 되찾고 싶은 아들’이라고 명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또다시 잃을 수밖에 없는(?) 아들들에 대한 걱정이 태산같이 밀려오는 아버지의 표정 때문이다. 정녕 그 모습은 우리가 신앙하는 하느님의 고뇌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 아닐까? *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글/김웅배 안드레아

부활
제 6주일

2023년
05월 14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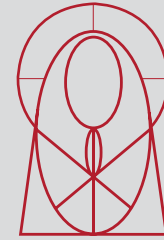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10AM~3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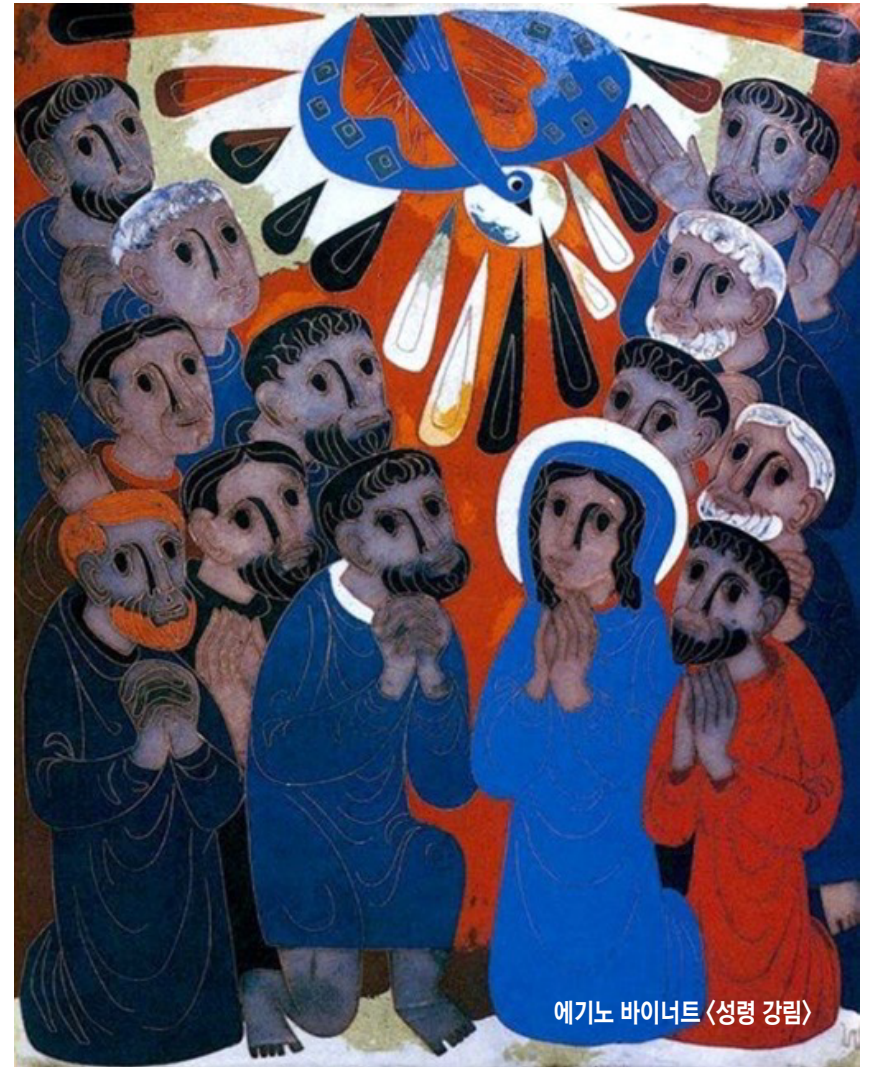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에기노 바이너트 <성령 강림>

〈 이번 주 전례안내 〉

- # 제 1독서 사도행전 8,5-8.14-17
- # 화답송 시편 66(65),1-3 7 1,4-5.6-7 7.16과 20(© 1)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 # 제 2독서 베드로 1서3,15-18
- # 복음 환호송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 복음 요한 복음14,15-21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 # 성가번호 입당 128 봉헌 511 성체 163 파견 245

성당소식

새로 오신 분, 방문해 주신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 미사지향 (연미사)
- 정창웅(그레고리오) - 가족
 - 문명선 - 가족, 박재영(요아킴)
 - 백봉화 - 가족, 박재영(요아킴), 어부들마을, 한광동(바오로)

- 이석종(스테파노) - 가족
- 추성태(바오로)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김상기(요셉) - 가족
- 최예생 - 김 스텔라
- 이태순(베드로), 이상열(토마스), 최준혁(베드로) - 가족
- 손한식,김계배,손음복 - 손흥구(바오로) 가족
- 윤영철(스테파노), 정선문(릿다) - 가족
- 이 요안나 - 가족
- 정순애(안젤라), 정남진 - 유병기(베네딕도), 유용희(울리아나)

- 박 세실리아, 이점열 - 임문수(마르코), 임 스텔라
- 유태순(마리아), 조영옥(아가다), 김순(마리아) - 채희백(바오로) 가족
- Norma Skriner, Anna Kali - Charles Skriner, 김수완(세실리아)
- 오옥자(테레사), 오옥순(수산나) - 이 마크리나
- 돌아가신 모든 어머니들 - 백 카타리나
- 돌아가신 모든 레지오 단원분들 - 백 카타리나

- 미사지향 (생미사)
- 윤석로(이냐시오) 부제님 - 교우
 - 염은미(클라라) - 가족
 - 김종숙(마리아) - 민 엘리자벳
 - 방상호(요한) - 임 안나
 - 방진숙(테레사) - 임 안나
 - 박재영(요아킴) - 박 안나
 - 유용희(울리아나) - 박 안나
 - 서영원 - 박 안나
 - 서범석(펠릭스), 김유진(마르셀라) 새가정 축하 - 가족, 김순옥(울리아) 최현지(안토니아)

- 이보현(요안나) - 이서형(요안나)
- 이승빈(레오) - 박락준(베드로), 한 크리스티나
- 김도용(스테파노) - 김순옥(울리아)
- 이슬아(크리스틴) 졸업 축하 - 김순옥(울리아)
- 김태오(테오도르) - 가족
- 구용호(바오로), 조경희(세실리아) - 가족
- 이대우(베드로), 이재성(테레사) - 박화성(헬레나)
- 백영숙(헬레나) - 박화성(헬레나)
- 박 안나 - 박재영(요아킴)
- 이희숙(테레사) - 전 글라라
- 하용무(테레사) - 박재영(요아킴)
- 김옥전 - 김태경(카타리나)
- 김인자(로마나) - 가족
- 이서형(요안나) - 가족
- 임 스텔라 - 가족
- 이남숙(크리스티나) - 정수지(아네스)
- 김종화(아가다) - 김 다미아노, 이냐시오, 정수지(아네스)

- 채미영(테레사) - 이 마크리나, 정수지(아네스)
- Grace Lee - 정수지(아네스)
- 정명숙(테레사), 황분숙(비비안나) - 이 마크리나
- 정경애(미카엘라), Christine Skriner - Charles Skriner,, 김수완(세실리아)
- 채미영(테레사) - 켄마, 요안나/스테파노, 사무엘/헬렌

- 2차 헌금
- 5월 14일: 유틸리티
- 성당 건물 관리를 위하여, 주일 한국어 미사 후에는 엘리베이터 문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을 밖에서 잠글 예정이오니 성당 문단속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성모성월을 맞이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부터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5월 매일미사 책을 신청하신 분들은 성당입구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무장 개인 사정으로 2달 가량 주일 미사에 참석을 못합니다. 교무금, 감사헌금, 미사 지향 신청봉투와 예물은 주일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시면 사무장이 출근하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무장에게 볼 일이 있으신 분들은 평일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개인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732-258-5998)

어머니날을 축하하며 본당 야고보회원들이 교우분들을 위해 비빔밥을 준비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성소주일 담화문을 읽어 드립니다.

- 일시 : 5월 16일(화) 저녁 8시 30분
- 썹 링크: <https://www.zoom.us/j/7323561037> Passcode: 1111

- 성모성월 미사 안내
- 일시 : 5월 21일(주일) 오전 11시 30분
 - 신부님께서 화관과 함께 입당하시면 그 뒤를 따라 사목회, 성모회, 꾸리아, 자모회, 요셉회에서 각 단체별로 준비한 꽃 바구니와 함께 입당을 합니다.
 - 신부님 강론 후 묵주기도 1단을 함께 바칩니다.
 - 신부님께서 준비하신 성모님께 드리는 마음의 편지를 꾸리아에서 낭독합니다.
 - 주일헌금을 봉헌하면서 미리 준비해오신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와 본당에서 준비한 꽃을 함께 봉헌합니다.
 - 성모성월 미사에서 교우분들께 나누어 드릴 꽃 후원을 받습니다. 도움 주실 분들은 사무실 또는 채미영(테레사) 꾸리아 단장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부님께서 \$50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목회의
- 일시 및 장소: 5월 14일(주일) 미사후 친교실 회의실

- 노스브런스워 구역 모임
- 일시 및 장소: 5월 14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5월 21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 메타천 구역모임
- 일시 및 장소: 5월 21일(주일) 미사후 친교실

- 본당 유지 관리 현황
- County Fire Department 점검 후 후속 조치로 비상시 대비 및 대응 절차서 확립 중
 - 성모정원 기부자 명패 제작 논의 중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5/7 주일 헌금 (146명)..... \$1,555
 - 2차헌금 (Development of People)..... \$375
 - 감사헌금 (익명)..... \$200
 - 교무금\$4,780
 - 이용문(5) 박락준(5) 김삼식(5-6) 박재영(5-6)
 - 이종권(4-6) 오현주(5-6) 이재구(1-6) 최영옥(5)
 - 염기선(5) 박병태(5) 이지민(1-6) 한상철(4)
 - 우성현(1-6) 김성일(2-3) 나채국(1-6) 김영필(5-6)
 - 최율리오(7-9, 2022)

말씀보전례

제1독서: 사도행전8,5-8.14-17

그 무렵 펠리포스는 사마리아의 고을로 내려가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군중은 펠리포스의 말을 듣고 또 그가 일으키는 표징들을 보고, 모두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사실 많은 사람에게 붙어 있던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또 많은 중풍 병자와 불구자가 나왔다. 그리하여 그 고을에 큰 기쁨이 넘쳤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그들 가운데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께서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때에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베드로 1서3,15-18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히 모시십시오.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나 바른 양심을 가지고 온유하고 공손하게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선한 처신을 비방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중상하는 바로 그 일로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보다 낫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도 죄 때문에 단 한 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느님께 이끌어 주시려고,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으로는 살해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요한 복음14,15-21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아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 | |
|------------|-----------|
| 정영철(프란치스코) | 하건철(안토니오) |
| 오용덕(헨리코) | 오경선(원선시오) |
| 염은미(클라라) | 하준석(마태오) |
| 곽 율리안나 | 방진숙(테레사) |

2023 Bishop’s Annual Appeal
《Renewed and Sent on Mission by the Eucharist》

- 2023년 목표금액은 \$37,000입니다. 목표금액 달성시 초과금의 50%는 본당으로 귀속되며 4/28까지 약정 금액은 \$35,764.14 (목표금액의 96.66%)입니다. 현재 목표액에 \$1,235.86 미달입니다.
- 메타천 교구내의 사목, 교육, 자선활동을 지원하는 2023 Bishop’s Annual Appeal 에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목상도봉글

염선을 임마누엘 신부

“하느님께 같은 사랑을 받는 한 가족”

우리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건, 하느님 안에서 같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부의 사랑이 아들에게 ‘주는 사랑’이라면, 성자의 사랑은 아버지께 ‘받는 사랑’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주고받는 ‘사랑 자체’가 바로 성령입니다. 이 삼위일체과 일컫는 관계는,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오늘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삼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아는 어둠 속에서 외로워하는 아이,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부모가 없어서 고아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남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모두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사랑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내게 사랑을 알려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내 부모요, 내 형제, 내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하느님처럼 사랑을 주는 부모가 되지 못하고, 누군가를 어둠 속으로 던져버리고, 자신도 고아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벌어집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하느님 안에서 한 가족이란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외로워하는 이들이 혼자가 아닌란 걸 깨닫도록, 더 이상 누군가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대전교구〉



말씀 나눔

말씀 안에 드러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눕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는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나눕니다.

1. 내게 가족이 되어 준 이들을 만난 경험이 있나요?

2.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알려주시려고 몇몇을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나는 특별히 어떤 이들의 가족이 되고 싶나요?